



비양도 몸살 앓지 말고 날갯짓하는 섬으로

비양리마을회·바다쓰기
섬의 가치 공유하는 자리
해양전문가 초청 강연
바다쓰레기 변신 체험

섬은 또 다른 섬을 비추는 거울이다. 작은 섬이 밀려드는 관광객과 개발 바람으로 몸살을 앓으면 큰 섬도 비슷한 증상을 겪는다.

제주시 한림읍 금능 해변에서 바라다보이는 비양도. 더 늦기 전에 자그만 이 섬의 가치를 오래도록 지켜가자는 움직임이 있다. 비양리마을회(대표 윤성민)와 바다쓰기(대표 김지환)가 손을 잡고 이달 8일부터 비양도해양문화교육관(비양도길 25)에서 펼치는 체험과 강연 프로그램이다.

시끌벅적한 축제 대신 차분히 앉아 섬의 오늘과 내일을 그려보는 강연(오후 2시부터)은 '다시 찾은 무대륙 비양도'를 주제로 해양환경 전

문가를 초청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최초의 그린피스 항해사인 김연식(9월 8~9일), 전세계 200여곳을 탐사한 노형래 글로벌에코투어연구소장(9월 15~16일), 세계 최연소 극지마라톤 그랜드슬램을 이룬 윤승철 무인도·섬테마연구소장(9월 29~30일), 섬을 주제로 시를 써온 이세기 시인(10월 6일), 제주 조간대 물웅덩이 전문 다큐영상 감독인 임형묵 김이와바당 대표(10월 7일), 잡수와 해양안전 전문가인 전형배 한국잡수협회 인천시지부장(10월 13~14일)이 비양도를 찾는다.

비양도에서 건져올린 쓰레기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무료 체험도 있다. 오전 10시와 오후 1시에 1시간씩 '똑딱똑딱 비양도 바다쓰레기'의 변신'이란 주제로 캔

들흙더(9월 8~9일), 벽걸이화병(9월 15~16일), 액자(9월 29~30일), 시계(10월 6~7일) 등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가 진행된다. 첫날인 8일 낮 12시에는 1세대 캘리그라퍼인 김종진 작가의 무료 캘리그라피 이벤트도 예정되어 있다.

윤성민 비양리 이장은 "그동안 비양도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섬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 같



진선회기자 sunny@ihalla.com

버려지는 물건이 보물로... 첫 업사이클 페스티벌

7~8일 탐라문화광장 일대
새활용 체험·워크숍 다채

버려지거나 쓸모없는 물건이란 없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이달 7~8일 이틀 동안 제주시 탐라문화광장 일대에서 올해 처음 개최하는 '2018 제주 업사이클 페스티벌 가치코지'를 찾으면 이를 확인하게 된다.

업사이클(Upcycle·새활용)은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의 합성어다.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디자인, 실용성 등을

가미해 더 나은 가치를 가진 새로운 대상으로 재탄생시키는 일을 말한다. 첫날 오후 2~5시에는 산지천갤러리에서 '자원순환 섬, 제주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업사이클 전문가 워크숍이 마련된다. 8일 오전 11~오후 5시에는 북수구광장에서 '웃길이의 달인' 엄지홍이 진행하는 웃질이 업사이클 체험을 비롯해 플라스틱 요구르트통, 깡통, 바다 쓰레기 등 생활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업사이클 무료 체험이 이어진다. 악기 제작자 윤주현씨는 폐자재 업사이클 수제악기 소개와 피리

만들기 교실을 꾸린다. 경기도 광명예술아트센터 홍보 부스도 설치된다. 2018 제주 업사이클 공모전 입상작 20여 점도 만날 수 있다. 폐현수막으로 만든 놀이 공간인 '같이 놀자! 다가치 놀이터'에서는 페트병 블록으로 로봇 조립하기, 자전거 발전기를 사용해 솜사탕 만들기, 석고마임, 카디라 퍼포먼스 등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 행사가 준비됐다. 이밖에 미술사 김민형의 폐자원 활용 미술쇼, 제주갑부훈의 라이브 콘서트 등 무대 공연도 다채롭다. 문의 064)800-9184~5. 진선회기자

9월 서뻏앤 록과 실험음악

사토 유키에 초청 공연 등
업사이클링 설치미술전도



밴드 '곰창전골'의 사토 유키에(왼쪽)가 록&실험음악으로 9월 서뻏앤을 찾는다.

장르를 넘나들며 실험적 무대를 이어오고 있는 서귀포 도심 복합문화공간 서귀포문화팻대리충전소가 9월에도 문화충전을 멈추지 않는다.

이달 8일 오후 7시30분에는 피아니스트 박창수의 '프리 뮤직'이 펼쳐진다. 16일 오후 5시에는 한국 음악에 빠져 '곰창전골'이라는 밴드를 조직해 활동하고 있는 사토 유키에 초청 공연 '록&실험음악'이 예정되어 있다.

29일 오후 7시에는 이주민들이 참여하는 서뻏앤 정기 프로그램인 '미친 댄스 파티'가 마련된다. 이번에는 싸이키델릭 트랜스, 타악, 실험음악이 어우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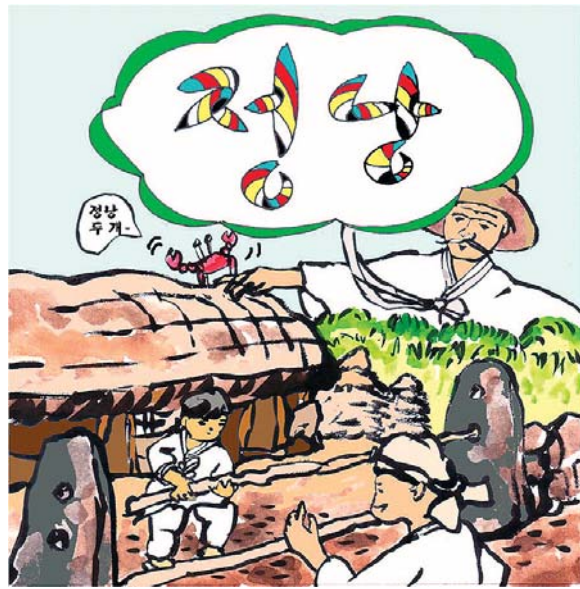
전시도 준비됐다. 이탈리아 작가 알프레도 시우토의 업사이클링 설치미술전 '어라운드 라이트'로 이달 30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064)738-5855. 진선회기자

고재만의

제주어기념관

<119>

구성: (사)제주어보존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 땀이: "누님-오널 아적이 무신 일 신디양, 하르바님이 누님을 좇안마써."
하르바지: "쫄네야- 이제 ㄱ을 들언 선선한 ㅈ름이 붙었지.
모멸밧이나 강 췌러보라."
쫄 네: 예- 하르바지, ☞땀이야- 오널 나영 저 오름 쫄꼬디
모멸밧이나 갓당오게 글라."
하르바지: "아르덜아- 밧디 가지게 뷔민 정낭 두개 올려 ㄴ뵐 가사훈다.
알아시냐?"

* 제주어 풀이

*아적(아적, 아적, 아침, 아적, 아적이, 아적): <아침> 아침.
*좇안마써(좇다, 좇다=찾다): <찾았어>.

*ㄱ을 들언: 가을이 되니. *ㅈ름이 붙었지: 바람이 불고 있구나.
*갓당오게 글라: 갓다오자 가자. *밧디 가지게 뷔민: 밧에 가게 되면.

*정낭(정낭, 정살, 정살낭, 정살낭, 정살낭): <이름>집의 출입구에 문이 없을 때에, 사람이나 짐승의 출입을 막기도 하는 긴 나무(양쪽에 구멍을 뚫은 정주목을 세우고 '정낭'을 걸쳐놓음).

-부호-:<이름>이름씨(명사)/<그림>그림씨(형용사)/<음적>음적씨(동사)/<어찌>어찌씨(부사)/<대어품>대어 품씨(대명사)/<췌>췌씨(수사)/<느낌>느낌씨(감탄사)/<토>토씨(조사)/<때>때가췌품소/<억은말>억은말/<속 답>속답 (출처: '제주말 큰사전' 송상조저, 한국문화사.1991)

※ 이 코너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이뤄지고 있습니다.

비 바람을 이긴 무대, 얼마나 성장했나

창작오페레타 '이중섭' 공연
6~8일 서귀포예술의 전당

서귀포시 대표 문화콘텐츠인 창작오페레타 '이중섭'(부제 '비 바람을 이긴 기록') 공연이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서귀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창작오페레타 '이중섭'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우리나라 대표 근현대 대표 화가 이중섭의 일대기와 가족에 대한 사랑과 작품에 대한 창작열을 다룬 작품이다. 총 4막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6개의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며, 지난해보다 커진 무대 스케일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을 위해 서귀포시는 최근 국내·외 왕성한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김숙영 연출가를 비롯해 국내 정상급 성악가를 섭외하는 등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공을 들였다.

6일에는 테너 김동원·소프라노 오은경을 비롯해 정호진·한동균·황은애·제주출신 성악가 오봉화가 출연하며 8일은 테너 이영화·소프라노 김유섬을 비롯해 민경환·제주출신 성악가 김승철·신숙경·제화미가 출연한다.

공연은 6일과 7일 오후 7시 30분, 8일 오후 3시와 7시 30분으로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나 서귀포시청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예매할 수 있다. 문의 760-2495.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여름 장구춤, 겨울 대금... 사계절 허튼굿

오유정·박수현·신은오 등
오늘 3인 3색 나눔 이야기

예술가 3인이 전통예술로 한국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담아낸다. (사)전통예술공연개발원 마로가 이달 5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펼치는 '허튼굿 나눔이야기-3인 3색' 공연이다.

이번 공연에는 유순자 명인에게 여성농악을 전수받은 설장구춤의 오유정, 서울대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하고

뉴욕대에서 무용교육 석사학위를 받은 춤꾼 박수현,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상임단원인 남도소리꾼 신은오가 출연한다. 봄의 싱그러움, 여름의 푸르름, 가을날의 목직함, 겨울의 쓸쓸함이 이들의 춤과 소리에 실려온다. 특히 겨울은 고향을 향호성 오승진 신웅화 등 마로단원들과 어울려 아쟁과 대금의 한서린 음색, 타악기와 태평소의 웅장한 기운이 무대에 퍼진다.

관람료는 무료. 문의 064)722-0129. 진선회기자

제주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오늘부터 문화동아리 연합전

제주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문화동아리 연합전이 이달 5일부터 열린다. '바람이 머무는 숲'이란 이름을 단 이번 전시에는 드로잉, 수채화, 아크릴화, 크레용화, 캘리그라피 동아리가 참여한다. 동아리 회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열정으로 빛이낸 작품들을 선보이는 자리다. 이달 28일까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기획전시실. 개막 행사는 5일 오전 11시에 마련된다. 문의 064)710-4243. 진선회기자

승진 서기관



김재철
(28회)

서기관(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예래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이병현 외 동문일동

취득 관광학박사



강기호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과장)
(서귀중, 대기고, 중앙대학교)
처: 김명수(서귀중앙초 교사)
(부: 강희상(정방동주민자치 초대위원장) · 모: 오숙자)

제주대학교 관광학 박사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강동화 (제스코마트 대표이사)

합격 제53회 공인회계사



오재욱
(제주사대부고 22회 졸업,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부: 오영준 · 모: 양순옥)

공인회계사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매형(이정일) · 누나(오은의)

승진 서기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서기관(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일회
회장 이종원 외 회원일동